

## 작품 개요

「당나귀」는 시인 조병화(趙炳華, 1921~2003)의 4번째 시집 『인간고도(人間孤島)』 중의 한 곡으로서 작곡자가 33세 때인 1955년 4월 6일 작곡되었다. 이 곡은 1955년 4월 12일 배재 대강당에서 열린 <제2회 나운영 신작곡 발표회>에서 부인인 알토 유경손(柳慶孫, 1921~2011)에 의해 초연되었고, 1967년에 발행된 나운영의 세번째 가곡집 『나운영 가곡선』(한국음악문화사)에서 출판되었다.

## 작곡자가 제시한 연주법

- 1) '아이야' 에서 '아' 를 Tenuto로
- 2) '그렇게' 에서 '그' 를 Tenuto로
- 3) '그렇게 마구' 에서 '그' 와 '마' 를 Tenuto로
- 4) '아무런 미움이 없이' 에서 '아' 와 '미' 를 Tenuto로
- 5) '어쩌다가' 에서 '어' 에 부점이 붙어 있듯이
- 6) '살고 있는' 에서 '살' 을 Tenuto로
- 7) Piano 반주는 전주 간주 후주를 강조할 것
- 8) '어쩌다가 멋모르고 태어난 당나귀 나 한마리' 에 있어서 Arpeggio가 네번 나오는데, 첫째·둘째는 빠르게, 셋째·넷째는 조금 느리게
- 9) '낙엽이 술술 내리는 저문 이 길' 에 있어서 Arpeggio는 느리게
- 10) '살고 싶은 죄 밖엔 없습니다' 다음에 나오는 Trill은 천천히 굴리다가 점점 빠르게 굴릴 것.
- 11) '아이야 그렇게 미워하질 마십시오 그렇게 마구' 에 있어서 4·5박의 2도로 부딪치는 음을 조금 강조할 것.
- 12) '살고 싶은 죄 밖엔 없습니다' 와 '보십시오 나도 함께 소리 없이 끼어 갑시다' 는 낭독조로, 말하듯, 속삭이듯
- 13) '낙엽이 술술 내리는 저문 이 길' 의 페르마타를 매우 길게, 그 다음에 충분히 숨을 쉬고, 새로운 기분으로 '보십시오' 를 시작할 것.

# 당나귀

No. 1

作詞

作曲

編曲

느릿리 느릿리

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piece "당나귀" (Donkey). The score is written on aged paper and consists of several staves. The key signature is two sharps (F# and C#), and the time signature is 6/8. The music is written in a mix of treble and bass clefs. The first staff shows a treble clef with a 6/8 time signature. The second and third staves are a grand staff (treble and bass clefs). The fourth staff is a single treble clef staff with lyrics written below it: "아 아 아 - 2". The fifth and sixth staves are a grand staff with lyrics: "느릿리 - 미 워리길 미심사 오 - 2". The seventh and eighth staves are a grand staff.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, rests, and dynamic markings like "pp" and "p". There are some red markings and corrections on the score.